

너는 껌데기처럼 누굴 품어 본 적 있느냐

전 전남문협 회장 박형동 시인
‘김현승 문학상’ 수상 계기
7번째 시집 ‘껌딱과 알갱’ 펴내
가족 향한 사랑 아픔·깨달음 투영

“나이 들어 은퇴를 하게 되고 뒷전으로 물러나 앉으면서 ‘인생은 ‘껌딱’이 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사유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상대 개념인 ‘알갱’과 연관해 생각을 했어요.”

전남문협 회장을 역임했던 박형동 시인이 7번째 시집 ‘껌딱과 알갱’을 펴냈다.

제목부터 이색적인 이번 작품집은 ‘껌데기’, ‘알맹이’의 전라도 방언인 ‘껌딱’과 ‘알갱’을 차용한 것이다. 장성이 고향인 박 시인은 어린 시절 그런 방언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시집 출간 소식을 전해온 그는 “10여 년 전 전남문협 회장을 맡아 일하느라 바빴고, 그 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한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최근 건강이 회복돼 ‘시집을 냈으면’ 하던 차에 지난해 뜻밖에 김현승문학상을 수상했다”고 시집을 펴내게 된 계기를 전했다.

광주시 예술상 부문 가운데 ‘김현승문학상’을 수상, 창작지원금으로 시집 발간을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시집이 나오기까지는 저간의 아픈 사연도 있다. 박 시인은 “오랜 지병으로 거동을 못 하던 아내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이를 수발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시적 완전기억상실증’이 왔다”며 “다행히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놀란 자녀들이 서둘러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속앓이를 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은 나의 완강한 반대로 몇 번의 번복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고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게 됐어요. 매일 아내를 면회하고 돌아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죠. 특히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를 잃고 외롭게 성장한 탓에 저에게는 텅 비어있었던 모정(母情)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쳐, 요양원을 오가며 많은 생각과 지난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번 작품집에는 이에 대한 시들이 주를 이루며 사랑과 아픔, 뒤늦은 깨달음 등이 투영돼 있습니다.”

기자가 아는 박 시인은 다형 김현승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형이 절대고독과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의 과정을 거쳐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를 쓴 것처럼, 박 시인도 한때 깊은 고독과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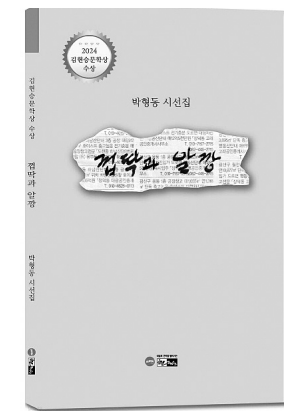
물론 시적 성취에 대한 부분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박 시인은 “끝내는 그의 자취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현승은 저를 아프게 한 분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낮췄다.

기자가 아는 박 시인은 따로 시를 배운 적이 없다. 혼자 시를 공부해오며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시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흔한 것, 사소한 것, 버려



장성 출신 박형동 시인이 제7시집 ‘껌딱과 알갱’을 펴냈다.

〈박형동 시인 제공〉



지는 것,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시를 쓰는 이유라는 것이다.

“더러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거짓 속에서 진실을, 미움속에서 사랑을, 하찮은 것에서 소중한, 갈등 속에서 평화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입니다. 길바닥의 풀꽃, 바위웃, 거미, 하루살이, 소금쟁이, 쇠똥구리같이 하찮거나 사라져가는 것들이며, 틈새, 자투리 땅, 갈래, 바보와 같은 것들이 시적 소재이구요.”

그에게 시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삶의 가치와 그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자 그것은 곧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연결된다.

박 시인이 이번 작품에서 표제로 내세운 ‘껌딱과 알갱’은 사실은 시가 아니다. 제4부의 갈래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껌데기라고 억지로 벗겨내지 말라/ 너는 껌데기처럼 누구를 품어 본 적이 있느냐/ 껌데기처럼 필요하게 감싸 준 적이 있느냐// 껌데기처럼 필요한 것이 있느냐/ 껌데기처럼 거룩한 것이 있느냐// 어떤 시인은 껌데기는 다 가라고 했었지만/ 껌데기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느냐// 때가 오면 저절로 벗겨지리니/ 억지로 벗겨내지 말라/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껌데기였듯이/ 너 또한 껌데기가 되리니”

시보다 더 시 같은 ‘말’이다. 인생 후반기에 이른 시인이 깨달은 삶의 지혜이자 연륜이 묻어난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껌데기였듯이/ 너 또한 껌데기가 되리니”라는 표현은 읽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정작 우리 자신도 ‘껌데기’나 다름없는 존재이기에 서로를 품고 다독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시인은 중고등 시절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직에 입문해 별교사광여고, 광주경신여고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광주지산교회 장로가 돼,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왔다.

한동안 몸이 아파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2014년 전남문인협회 회장이 됐을 당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등에서 건강을 잃었다.

“대상포진, 늑막염, 통풍, 복시, 장염 등이 밀어닥쳤습니다. 모두가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늑막염으로 폐에 가득한 물을 3리터나 빼내야 했는데, 숨을 쉴 수 없이 아파서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각각 따로따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심해서 운전도 독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물을 보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했던 그는 병상에 있는 동안 한쪽 눈을 감고 100권짜리 세계문학전집과 삼국지, 초한지, 수허지, 태백산맥, 아리랑 등 소설을 읽었다. “눈물과 기도와 인내의 터널이었다”는 말에서 저간의 극복 과정이 어려웠는지 짐작이 갔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5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고, 지금은 거의 정상을 회복했다”며 “다시 시를 쓰고, 독서를 하고, 문학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그는 광주신용도서관과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 문예창작반을 개설해 글벗들과 함께 시와 수필을 공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벗은 평소에도 글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노인들이다.

“글벗들이 글을 쓰는 동안 자신들의 삶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며 매우 행복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시인, 수필가로 등단해 시집과 수필집을 낼 때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박 시인은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글벗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또 하나는 ‘문불여장성’ 출신으로서 장성문화 발전을 위해 뜻있는 일 하나쯤 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속 예술 경험 ‘디어마이광주’

공연·전시·행사 온라인 통합플랫폼... 11일까지 시청서 참여형 축제



‘크리에이티브아트’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디어마이광주’는 광주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심 예술인을 팔로잉할 수 있으며, 예술가는 별도의 장벽 없이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로 자리잡았다.

‘디어마이광주’를 운영하는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1일까지 광주시청 로비에서 시민 참여형 축제 ‘디어마이워크’를 연다. 온라인 플랫폼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축제 기간 동안 시청 로비에는 지역 예술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하슬 작가는 회화를 통해 삶과 치유의 정서를 풀어내고, 우유림 작가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탐구하는 실험적 작업을 선보인다.

염순영 작가는 사물의 미세한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작품을 전시하며, 유순 작가는 자

연과 인간의 내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회화를 선보인다. 지역 창작자들의 개성이 한자리에 모이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예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성과공유 한마당’ 공연이 진행된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Asian Arts Special Award를 수상한 ‘크리에이티브아트’가 임사이를 악기로 구성된 콰르텟 무대를 올린다. ‘트래픽’, ‘배사메무쥔’, ‘힘’ 등 친숙한 곡들을 재해석한 레퍼토리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참여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린다. ‘디어마이광주 포인트마켓’에서는 출석 체크나 게시물 작성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뒤, 지역 작가의 굿즈와 광주 전경 스타프, 텀블러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인고의 시간이 발효한 절창의 시

임영자 시인, 10년만에 시집 ‘겉꽃으로 피어나는 손’ 발간

예술 장르 가운데 시가 맨 앞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미학 때문이다. 압축적 문장과 상징적 이미지, 절제의 감성은 깊은 울림을 준다. 좋은 시는 시어, 비유, 이미지, 감성 등이 적절하게 교직되었을 때 발현된다.

등단 10년 만에 첫 시집을 펴낸 임영자 시인. ‘겉꽃으로 피어나는 손’(시산맥)은 인고의 시간이 발효한 절창의 시들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사유하고 빚어낸 시어들이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임 시인은 이번 시집 발간 소감에 대해 “마당의 화단을 지켜주는 넝쿨장미와 남전은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다”며 “단풍이 들고 떨어지기를 심어 해 들고 돌아 겉꽃으로 피어나는 손을 가만히 가을 바람에 흔들려 본다”고 전했다.

시산맥 제48차 기획시선공모당선시집으로 발간된 이번 작품집은 좋은 시가 갖추어야 할 미덕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물에 대한 직관적 통찰을 자신만의 시어로 직조해내는 내공이 만만치 않다.

해설을 쓴 김성진 시인은 “그의 시가 다다르하고자 하는 시적 풍경의 깊이는 즉흥적 이미지와 심미적 풍경에 국한하지 않고 삶에서 배어 나오는 익숙한

풍경과 존재에 대한 성찰, 삶과 죽음, 명암, 풍경의 형상 재현 등 다양한 시제와 내용으로 심도있게 발현된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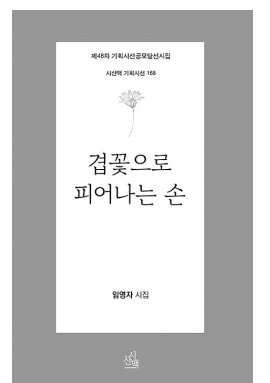
“(전략)// 땅속에서 자리 잡지 못한 바람은 / 까치발 세위/ 먼 곳을 향하여 손을 뻗는다 // 젖은 것들은 밖으로

나오고/ 안을 투실하게 채운 알맹이/ 어쩌면/ 경계 너머의 허기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보성역 을 망줄랑 늘어진 짐 보따리 옆/ 소나기를 털어낸 토란대 머리 바짝 세우고 서서/ 토란을 지키고 있다”

위 시 ‘토란’은 화자의 삶을 일정 부분 드러내는 작품이다. “마른 그림자를 지워가며 거친 땅 품었을” 삶은 발갈이 하듯 시의 발을 일구어왔음을 전제한다.

한편 보성 출신의 임 시인은 2015년 ‘시와사람’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